



새로운 '활짝'

2006학년도 서울캠퍼스 입학식이 지난 27일 만해광장에서 치러졌다. 행사에 참석한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데 어울려 웃고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 신설

학생처(처장=조의연, 영어영문학) 진로교육담당팀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엘리트 인재의 유치와 우수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은 우수인재를 엄선해 세계 최고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향후 10년간 총 1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장학 프로그램은 2003년 2월 이후 우리학교 졸업생 또는 2007년 졸업 예정자 중 로스쿨과 MBA를 제외한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 상위 5위 이내 대학에 입학 허가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5만 달러를 3년간 지원한다.

미국 하버드대의 Theda Skeocpol 교수는 서신으로 "동국대 출신 학생들의 하버드대 입학률 즉각 환영하며, 대학원 입학 시 매년 5명까지 연간 3만 달러씩 3년간 장학금 지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은 지원내용 및 선발 기준 등 내부기준을 확정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인문학 장학생에 본교생 19명 선발

인문학 연구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파격적인 장학제도의인 서울인문학 장학생에 본교생 19명이 대거 선발되었다. 이 숫자는 서울시내 대학 30개교 중 서울대학교(25명), 고려대학교(25명), 성균관대학교(21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인문학 전공 대학원 박사과정 전일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이 장학금은 학기당 250만원, 통상적인 등록학기인 4학기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번 선발되면 1학기생의 경우는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학교 홍기삼 총장(국어국문학)의 적극적인 제안을 이명박 시장이 전격적으로 수락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 것. 지난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여 1월중에 공고, 2월 20일(서투)과 27일(면접) 심사를 통해 3월 2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했다.

한 해에 300명씩 1년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인문학 장학생은 이번 1학기에 180명(서울 170명, 지방 국립대 10명)을 선발했고, 2학기에 120명(서울 110명, 지방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매학기 선발하므로 기회는 많다. 수여식은 3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명홀에서 열린다. 선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어문계열=박판식(국어국문), 허관부(국어국문), 광미경(영어영문), 김상원(영어영문), 김윤정(문화콘텐츠) ▲사학계열=이규리(사학), 권오수(사학), 정성권(미술사학), 이웅진(미술사학) ▲철학계열=이승준(철학), 신승철(철학), 이진영(선학), 김영일(불교), 최미남(불교), 정지용(불교) ▲교육계열=김기영(교육), 김경숙(교육) ▲기타계열=정민아(연극영화), 정영권(연극영화)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국고지원 사업 선정

취업지원센터(센터장=조의연·영어영문학)는 2006년 처음 실시하는 노동부 지원 '대학 취업지원가능 확충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억 8,9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229개 대학이 신청했고 사업의 실효성, 취업지원실적, 취업인프라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8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우리 대학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24개 중 최고금액을 지원받게 됐다.

우리대학 취업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기구 확대, 전문상담원 채용, 예산 증대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본 사업의 선정으로 HRDR(취업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합속교육), 전문가 릴레이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1학과 1기업 이상 협약 체결, 취업 스테디그룹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05학년도 서울캠퍼스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77명, 일반대학원 석사 207명, 특수대학원 석사 405명, 학사 2,461명으로 총 3,150명이 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공로상은 김성진(사회4) 군, 이사장 공로상은 황춘익(불교4) 군, 총장 공로상은 강은선(법4) 양을 비롯한 10명이 받았다. 또한 하인진(식품공4) 군은 총동창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성적우수상을 받은 각 단과대별 수석 졸업자는 △불교대=김혜영(불교, 4.31) △문과대=김미옥(영문, 4.30) △이과대=이항호(물리, 4.22) △법과대=송명선(법, 4.24) △사학과대=최태은(경제, 4.31) △경연대=김항숙(세무회계, 4.33) △생명자원과학대=신희정(식품공, 4.21) △공과대=최병주(전자공, 4.25) △정보산업대=이정운(컴퓨터공, 4.21) △사범대=김철진(국교, 4.43) △예술대=남초록(문창, 4.17) △야간강좌=장미희(경영, 4.10) 이다.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용택 교수 임명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인문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용택 교수가 지난 3월 1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김용택 교수는 우리학교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경주캠퍼스 도서관장, 사회문화교육원장, 기획처장, 인문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본사사령

- ◇ 임기만료
 - ▲ 편집장 = 황수상(불교대 인철4)
 - ▲ 대학부장 = 김지혜(사과대 사회4)
 - ▲ 기획부장 = 김지은(사과대 신병4)
 - ▲ 문화부장 = 최민희(사과대 신병4)
 - ◇ 신입부장
 - ▲ 편집장 = 김지혜(문과대 독문2)
 - ◇ 임정기자
 - ▲ 정은미(문과대 국문2)
- 이상 3월 6일자

'2006 새내기 새로 배움터' 열려

준비된 행사로 긍정적 평가 ... 연합 프로그램은 부족

총학생회(회장=정성진·경영4, 이하 총학)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생자대, 공과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중앙새터)'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었다. 이는 총학이 건학 100주년을 맞아 단과대 간의 학문·문화적 교류의 기회가 부족한 학내 현실을 타파하자는 취지로 개최한 것이다.

총학에서 기획한 행사들이 이뤄졌던 24일에는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회장 인사 △학생처장 인사 △학교 홍보물 상연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강연 △저녁식사 △등아리, 응원단 공연 △연예인 공연(SG워너비, 전혜빈)이 진행됐다. 새터에 참여한 1,800여 명의 학생들은 각 대

학, 학과별로 나란히 앉아 무대를 지켜보았다.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강연에서 학생들은 강연을 맡은 연예인 김제동 씨의 재치있는 입담에 흥미진진하게 강연을 들었고, 백상응원단의 지도에 맞춰 율동을 하기도 했다. 송현섭(생화공1) 군은 "강연이 특히 재미있었고 실제생활에 도움이 될 듯하다"며 "유쾌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각 단과대별로 일정이 나뉘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조를 짜서 '2인 1각', '단체 놀이기' 등 단체게임을 해 어색한 동기,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했고, 저녁에는 새내기 장기자랑과 단과대 소모임 공연 등을 즐겼다. 신지연(국문1) 양은 "선·후배가 함께 하는 일

정으로 얼굴도 익히고 대학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은 애초에 11개 단과대가 모두 참여하는 중앙새터를 기획했으나 불교대 등 6개 단과대 학생회간의 의견차로 새터를 따로 추진해 5개 단과대만 참여하게 됐다. 총학과 6개 단과대 학생회에서는 지난 18일 본관 중강당에서 중앙새터에 참여하지 않는 단과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새터 설명회를 열어 각 새터의 특징을 설명하고, 중앙새터비 환복 신청을 받았다.

이번 중앙새터는 2002년 이후 4년 만에 총학에서 주관해 추진한 만큼 어느 때보다 재학생과 신입생의 관심이 집중됐다. 중앙새터 프로그램 중 동아리 공연은

재학생들의 준비가 돋보였지만 공연시간이 다소 길어 진행 흐름이 끊기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이튿날에는 단과대별 프로그램만 진행돼 중앙새터의 추진의도를 살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새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학생회는 새터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단과대별 갈등을 해소하고 행사진행의 미숙과 준비부족 등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금주의 동국인

우리 영화 지킴이 이승제 군



최민식, 박찬욱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영화인들이 광화문에서 나섰고 있다. 바로 스크린쿼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 우리 문화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관심은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영화영상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스크린쿼터 사수 대학생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공식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단체의 대표인 우리학교 이승제(영화영상3) 군을 만나 스크린쿼터와 대책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좀 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대학생의 시각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다"며 대책위 활동 참여 계기로 말문을 연 이 군. "현재의 제작력과 작품성만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는 그는, 지금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명 운동 △유인물 배포 △1인 시위 피켓 전시 △스크린쿼터 오페라와 진실 홍보물 전시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몇 편의 흥행작만으로 판단하는 스크린쿼터 찬성자들이 있는 것이 아쉽다"는 이 군은 "젊은 예비영화인으로서 영화인의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미FTA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스크린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위해 지역별 연대와 학교별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동국인들도 지성인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승제 군이 보다 신선한 시각과 방법으로 우리 영화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금주의 동국인'을 추천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1906년 어둠의 시대에 명진학교가

배움의 문을 연 만큼,

나는 100년 동국대학교가 '어둠을 깨고'

'새벽을 여는' 대학이 되기를 바란다.

이곳 100년의 축적된 역사의 토지 위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언제나

자랑으로 남아있는

그런 동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의연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본부장



원고를 보내주세요. 다 함께 참여합니다. 총 상금 100만원!
우리 신문사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을 기획합니다.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동국가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첫 회는 100주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의연 교수(영어영문학)가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료 이외에 총 상금 100만원의 부상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동국 가족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회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안팎 원고 마감 2006년 4월 30일까지(1차 마감)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드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권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을 드립니다.(감동상 50만원, 자랑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5학년도 대학종합평가 결과 발표

학부 3개영역 '최우수' ... 종합평가결과는 우수대학으로 선정

대학종합평가 결과 신뢰성에 대한 지적 일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달 16일 61개 대학에 대한 2005학년도 대학종합평가 결과와 8개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에 따르면 대학의 학부 과정은 △대학경영 및 재정 △발전 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 협동 △학생 및 교수 · 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로 나누어 6영역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인정' 세 단계로 나누어 평가했다. 종합평가 결과 61개 대학중 경희대와 고려대 등 8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고, 우리학교를 포함한 19개의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학교 측은 "평가결과 1996년 대학종합평가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면서 이번 대학종합평가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연구가 평균수준 이상이 되었다면 전체 평가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평가의 연구 부문에서 우리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은 모두 '인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연구개발팀의 박명호 팀장은 "앞으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연구부문의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교협이 발표한 대학종합

평가에 대해 신뢰도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상명대를 제외 오프로 우수대학으로 발표해 상명대 측에서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서울대와 2001~2004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연세대와 서강대 등 55개 대학이 평가에서 제외돼 결과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대교협의 평가방법은 외국에서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표본이

되고 있다.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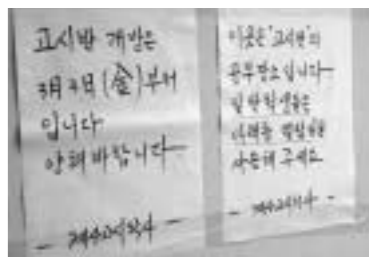
대학종합평가는 결과 발표 시점마다 신뢰성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되어 왔지만, 평가 방법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종합평가가 검증된 평가체제로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교협이 공정성을 유지해 평가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대학도 눈에 보이는 평가만 중요시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학종합평가가 교육환경 개선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회전무대

로스쿨의 힘



○...만해도 4층 열람실의 용도변경을 불과 반나절 남겨 놓은 채 종이 한 장으로 공지한 모습.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로스쿨 유지 명분은 학생들의 편의보다 우월하다(!)"

게릴라 공지

○...편입생들에게 공학인증제는 깜짝 이벤트용 제도라는데.

무슨말이고 하니, 학교측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수강신청 후에 갑작스럽게 공학 인증 과목을 들어야 함을 공지해 편입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새로 제도를 시행할 때는 학생들에게 사전공지와 설명의 기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 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예고 없는 제도시행에 애타는 건 학생들 뿐(!)"

랜덤배정

○...학구열에 불타오르는 동국인들의 의지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는데.

알아보니, 사물함 배정에 원칙이 없어 선착순의 의미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라고.

새벽부터 기다린 학생들을 감안해서 선호도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해야하지는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사물함 명당 자리 배정에는 예지력이 필요해(!)"

문지마 새터

○...새터준비를 일부 단과대는 비밀리에 진행했다던데.

무슨 말이고 하니 단위 새터를 추진한 단과대들이 새터비 납부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않아 해당 단과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학생들의 소속단과대 새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새터에 관해서만은 의도치 않은 아웃사이다(!)"

생협출자금 환불 실태 점검

대상자에 크게 못미치는 환불율 적극적인 홍보로 정보 제공돼야

우리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의 조합원이 되면 졸업시 출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전체 환불대상자 중에 학생들이 출자금을 받아가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 2003학년도부터 2년간 환불율은 약 60%이고 미환불된 금액은 약 2천백여 만원이다. 환불율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3학년도 전기=92% △2003학년도 후기=24% △2004학년도 전기=47% △2004학년도 후기=12%이다. 2003학년도까지는 각 학과별로 단체수령 하는 경우가 많아서 높은 환불율을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학생회비로 환부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직접 환불하게 하면서 환불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원인은 학생들이 입학 당시 등록금 고지서에 함께 기입된 형태로 출자금을 납부

했기 때문에 환불 자체를 잊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김용문 팀장은 "현실적으로 문자, 메일 등 개별적인 공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협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상법상 기한인 3년 이후에도 환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4년 생협이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조합원 가입 방식이 의무가입에서 자유가입화 되면서, 자유 가입한 조합원에 한해서는 환불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불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생협은 2005년 전기졸업자 출자금 환불을 지난 달 16일부터 실시중이다. 환불금액은 출자금+배당금(출자한 금액의 10%)이며, 본인이 학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생협사무국(해화관 1층)에 가서 서명 후 출자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정통부지원 NEXT 사업 선정

3개학과 4년간 24억 7천만원 지원 받아

우리학교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가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NEXT(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각 학과별로 1년에 3억씩 4년간 총 24억을 지원받는다. 그와 함께 전자공학과도 1년간 7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NEXT사업은 공학교육인증과 연계해 진행되며 각 대학에서 교육 환경 자체 진단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통부에서 지원하고 2년 후에 개선결과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가 이번

사업에 신청해 종합 1위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는 교육기자재 확충, 교육시스템 개선, 기업과의 멘토링 등의 분야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는 내년에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학과 이창환 교수는 "앞으로 사업진행과 지원금 활용에 대해 '특화된 실습기자재를 확보하고 산업체와 연계해서 공학교육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학기 부터 여대생 맞춤형 진로강좌 개설

이번년도 2학기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진로탐색과 커리어 개발' 진로교육 교과과정이 개설된다. 강좌는 3·4학년 여학생 64명을 정원으로 16주동안 진행되며, 2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번 교과과정 개설은 우리학교가 올해 교육부가 지정한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 과정 개설지원대학'에 선정돼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게 됐다.



디지로그 시대 한국인 ... 지난달 22일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이어령 박사(문학평론가)를 초청해 '디지로그(디지탈+아날로그) 시대를 앞서는 한국인'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이 열렸다. 이어령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내 것을 융합시켜라"고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강정구(사회학)교수가 지난 2월 8일 열린 제 215회 이사회에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는 이사회 임원 13명중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강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하나, 강의를 배정받을 수 없게됐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현재 법원에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한편 강정구 교수 사건해결을 위한 동국대학교 학생대책위원회 이관용(사회4)대책위원장은 "사회학과 졸업생 시위를 진행하고, 3월 8일부터 팔정도에서 강정구 교수의 천막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보리소

강의 들을 준비, 되었습니까?

대학의 수준 높은 강의는 전적으로 교수에게 달렸다. 하지만 교수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의 자격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고려 시대 지눌스님은 강의 들는 자의 마음자세를 이렇게 일러 주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밭길을 가다가

햇불을 들고 가는 죄인을 만났을 때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불빛까지 받지 않는다면 구렁에 떨어질 것이다.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듯 조심하여 반드시 귀와 눈을 기울여서 들어야 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그 깊은 뜻을 음미하라. 법문이 끝나면 고요히 앉아 생각하되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데가 있으면 반드시 선배에게 물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은 신경을 교수에게 집중하자. 문자메시지 확인은 강의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선배는 다양한 사례가 담긴 생생한 도서관이다. 자기가 괴롭힐 선배 한 사람은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서 자기가 선택한 강좌에 관련한 조급이라도 흐릿한 부분이 없도록 하자. 학생이 이럴할진대 무능하고 게으른 교수가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이 미령 동국여경원 역경위원

2006학년도 본교 파견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1. 교류대학 : 일본 대정대학 (Taisho University)
 2. 파견기간 : 2006. 9. ~ 2007. 8. (1년)
 3. 선발인원 : 4명 (서울캠퍼스 2명 · 경주캠퍼스 2명)
 - * 캠퍼스별 선발인원 이하로 선발된 경우, 타 캠퍼스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4. 지원자격
 - 가. 학부과정 3 ~ 5학기 재학생
 - 나.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이상 취득한 자
 5. 파견조건
 - 가. 본교졸
 -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교환학생 장학금을 지급함.(본교 등록금의 30%를 감면). 단,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파견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0 미만이거나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 2) 파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과 학점은 그대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성적은 P 또는 F로 부여하며, 학점 인정 범위는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 나. 일본 대정대학측 : 학비 면제, 가족사비 본인 부담
 6. 전형방식 : 학부성적평가 50% · 면접평가 50%
 7.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나. 성적증명서 1부
 - 다. 일본어능력시험 인증서(JLPT)
 8. 전형일정
 - 가. 원서접수 : 2006. 3. 2(목) ~ 3. 10(금), 국제교류실
 - 나. 면접 : 2006. 3. 15(수) 14:00 ~, 국제교류실
 - 다. 선정자 발표 : 2006. 3. 17(금) 개별통보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실 ☎ 02-2280-3876, 해화관 1층)로 문의 바랍니다.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3월) 시행

-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 해당 대학/학과는 지정된 소정의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함이다. 국제교육원은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토익을 시행함이다.
1. 접수 : 3. 13(월) ~ 3. 15(수) 24:00까지
 2.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접수증 출력 - 응시료 입금
 3. 시험 : 2006. 3. 25(토) 10:00 ~ 12:30 해화관 2층, 동국관(M) 3층
 4. 대상 : 영어PASS제 미취득자
 5. 응시료 : 5,000원
 6. 입급마감일 : 2006. 3.15(수) 24:00까지 (미입급시 취소)
 7. 접수 주의사항(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취소 가능)
 - 가. 학적부에 사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나.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급하시기 바랍니다. (※입급시 본인인원, 학번 또는 학과 표기: 예, 홍길동 2025123)
 - 다. 기 패스자 및 미 입급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9. 문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80-3471, 3590)
 10. 시험 주의사항
 - 가. 9시 45분 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취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D.C.E.P 안내

- DCEP이란 무엇인가?
Dongguk Career Elite Program으로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저학년부터 실시함으로써 졸업시 동국대학교가 보증하는 맞춤형 인재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 ※ 인종요건 : 사이버 6과목 이수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이수한 자
- 학 점 : 4학년 1학기까지 평점 평균 3.5이상
- 외국어 : 토익(850/인문, 800/자연), CBT(250), 텡스 780점 중 한 가지
- 자격증 : 컴퓨터 활용능력관련 국가공인 자격증(2급 이상) 한 가지
- 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 36시간 이상
- ※ 토익향상 지원금 지급 요건 : 기존 점수보다 100점 이상 향상된 경우(05년 3월이후)
- ※ 혜택
① 총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및 학적부에 인증 내용등재
②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기준 및 선발인원은 대상자 선발 시 별도 공지
③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체 홍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프로그램 인증자들에게 대한 기업체 인지도를 높이고, 취업 시 최우선적으로 추천
④ 인성교육실시
- 방학기간 중에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 개설교과목(매학기 6과목 개설, 절대평가)
-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교수명 | 비고 |
|-----------|-------------|----|-------|-----------------------|
| JOB001-01 |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 1 | 김 은 정 | |
| JOB002-01 | 인간관계 향상 | 1 | 윤 옥 한 | |
| JOB003-01 |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 1 | 한 두 성 | 사이버강의 (수강인원 과목당 150명) |
| JOB004-01 | 비즈니스 협상스킬 | 1 | 최 상 수 | |
| JOB005-01 | 갈등관리 | 1 | 윤 옥 한 | |
| JOB006-01 | 창의력개발 | 1 | 전 광 수 | |
- 문의 :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교내 3927/3935 job@dongguk.edu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부대찌개 (2000)	참치김치찌개 (1800)	된장찌개 (3200)
(3/6)	떡볶고기 (2000)	쇠고기양념육볶음 (2000)	부대찌개 (3500)
	참치김치비빔밥 (2000)	간동국 (2000)	자반구이 (3500)
화	설렁탕 (2000)	섭산적구이 (2000)	된장찌개 (3200)
	카레라이스 (2000)	제육겉절이볶음 (2000)	해물전골 (3800)
(3/7)	푸우미이볶음 (2000)	콩나물비빔밥 (2000)	두부김치 (3500)
	수	비리락순두부찌개 (2000)	비리락수제비 (1800)
닭도리탕 (2000)		오삼불고기 (2000)	우거지갈비탕 (3800)
(3/8)	두부김치 (2000)	잡채달걀밥 (2000)	낙지볶음 (3800)
	목	쇠고기국밥 (1800)	닭개장 (2000)
(3/9)		돈육고추장볶음 (2000)	탕수육 (2000)
	도토리묵우침 (2000)	김치볶음밥 (1800)	새싹비빔밥 (3500)
금	계란말이백반 (2000)	감자탕 (2000)	된장찌개 (3200)
	(3/10)	베이컨볶음밥 (20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닭갈비 (2000)		푸우미이볶음 (2000)	닭소림 (3500)

‘쿨 드라이버’ 캠페인을 제안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올바른 사회문화의 기본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모임이란 공식적인 틀을 벗어나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사적인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학생들의 독특한 모임문화가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 신입생으로서 환영회를 시작으로 학과M.T, 동아리 모임 등에서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를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위해에는 어김없이 술이 등장한다.

대학생들은 이런 음주문화에 대해 사회생활의 필수조건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지만, 수 세월을 겪어 온 어른들은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음주문화, 사회문제로 대두

매년 새학기가 시작할 즈음 매스컴에서는 어김없이 신입생 환영회의 통과와 레인 ‘사발식’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가 하면, 늦은 밤 학교주변의 유흥가는



논단

고영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팀장

대학생들로 붐비고 길거리는 술에 취한 대학생들의 독무대가 된다. 또한 이성을 잃은 대학생들의 고성과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풍경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잘못된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음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고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난폭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개인의 주량과 의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비인간적인 집단의 규범이 지배하게 된다.

또 졸업과 동시에 직장으로 유입되면 서 대학생 때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빠른

속도로 사회전체의 잘못된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차수가 높아질수록 음주문화의 후유증은 비례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작·경쟁구도 음주 없애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의 특징은 대작과 술잔을 돌려가며 여러 그룹이 ‘위하여’를 외치며 경쟁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술을 통해 단합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과음으로 인해 좋은 시작이 해로운 끝으로

마무리 되어 오히려 신체적, 사회적으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음주를 경험하는 대학 신입생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량을 마시면 술잔을 거절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며, 음주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문화생성에 앞장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는데 정부·기업·시민 등이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부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쿨 드라이버 캠페인을 시작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안실련, 주류회사, 언론사 등이 함께 ‘쿨 드라이버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자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쿨 드라이버 캠페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하여 올바른 음주문화를 깨닫고, 그 들 스스로가 만남이나 모임의 주제를 잊지 않고 술을 생활의 활력소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학생 음주문화는 세계의 선진 음주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사설

100주년 새내기들을 환영하면서

개강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3월의 새 학기는 새내기들로 인하여 더욱 새롭고 활기차다. 이들은 동국의 새로운 가족이며 미래의 큰 나무가 될 씨이다. 보통, 짙은 여리고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짙은 미래는 현재의 다르다. 하늘을 떠받칠 기상으로 우람하고 당당하게 자라나는 나무가 되기도 한다. 영국의 동화 ‘책과 콩나무’의 판타지를 보라. 기대와 설렘, 꿈과 희망의 모든 동기가 자그마한 콩씨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짙은 출발이다. 또한 짙은 하나이다. 그러나 짙은 변화는 놀랍다. 거대한 콩나무가 되어 하늘나라까지 뻗어 올라간다. 그 나라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든지 노래하는 하프라든지 하는 기적의 선물들이 무한정 있다.

동화 속 기적의 선물은 상상의 산물만은 아니다. 그것은 실제 삶과 아주 닮아 있다. 짙은 무한 증식하고 자기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복제한다. 손톱보다도 작은 것이 아름드리로 성장해 4천년 이상을 살기도 하며, 짙 하나가 자라 수백만의 짙으로 자기복제를 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기적의 선물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노래하는 하프는 자기복제를 통해 무한 증식하는 생명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선물인 것이며 배어나 짙은 기적의 꿈이 아니던가.

우리 새내기들도 저마다 이런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학기니만큼,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 더구나 올해는 건학 100주년의 해가 아닌가. 지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은 소중하다. 그러나 미래 100년의 꿈과 희망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꿈과 희망의 첫 주인공이 바로 100주년 새내기들이다.

이들은 이제까지의 입학생과 다르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시간의 심리학을 늘 운명처럼 꺼안고 다닌다.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곧 이들의 지킴이 될 것이다. 무엇이 지킴인가. 갱신(更新), 오로지 갱신이다. 갱신(更新), 쉬운 우리말로 풀어보자.

다시 새로워진다! 거듭 새로워진다! 자주 자주 새로워진다!
바로 여기에 미래 100년의 희망이 있다. 우리 희망의 백년동자들, 다시 한 번 뜨겁게 환영한다.

등록금 인상 현실적인 해결방안 필요한 때

국가·학교·학생 협력해 관행화된 인상고리 끊어야

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대학가에는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문제가 화두에 오른다.

학생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하고 그 때마다 학교 측은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등록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예년보다 인상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각 대학 총학생회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이 작년 대비 12% 오른 연세대는 총학생회가 지난 1월 서울 시내 18개 사립대학 총학생회와 연합해 감사원 앞에서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와 학생대표간의 4차 회의가 결렬되

고 양측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등록금인상에 대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작년 대비 8.5% 인상된 등록금이 책정됐다. 지난 2월 8일 학교 측과 학생대표들이 2차 원탁대담을 가지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학교 측은 예산안을 공개해 등록금의 쓰임을 밝히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8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의 등록금 인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발전의 측면을 강조하고 학생들은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반복되는 것만으로 등록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등록금 인상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

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1989년 이후로 법률적으로 대학 자율화가 보장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인상에 대해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IMF외환위기 때는 교육부가 가이드 라인을 책정해 2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전례가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행법 개정의 틀을 마련해 대학 이월적립금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고 학교는 재단의 고수익성 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예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많은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개선의 노력이 이



지난 2월 8일 정례회의실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생대표들이 등록금 인상과 학적 변경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루어져야 한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이 시점에서 학생과 학생당국 중 어느 한 쪽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대학의 전체적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학은 투명경영을 통해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학교 운영을

등록금에만 의지하는 관습을 탈피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대에 대해 무조건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히고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주관: 김세곤, 편집장: 강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교육과정 개선 위한 학사제도 대폭 개편

“다양한 제도 활용으로 알찬 교육 누리자”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우리학교 학사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교육과정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개편은 △교육의 질 제고 △학사제도 유기적 체제 구축 △실용성·유연성 확보 △학부·대학원 연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수강 관련 제도 개편, 3.5+1.5제도, 우등졸업제도 신설 등 세부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석기준 강화

학생들의 출석기준이 강화됐다. 결석허용일수가 기존의 수업일수 1/3에서 1/5로 단축되면서 신·재·편입학 시기도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줄었다.

전역예정자 복학의 경우에도 입학 및 복학시기가 단축됐다.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강 관련 개편

2006학년도 이수과목부터 재수강 자격을 C'이하로 제한했으며, 과목이 폐지돼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은 수강취소기간에 함께 이뤄지는 '학점포기'가 가능하게 됐다.

평점평균에 있어 교양·전공기초 과목의 경우 A가 0~30%, A+B가 0~75%으로 개편됐고 전공 심화과목은 A가 0~40%로 상대평가된다.

평가기준이 교양과목은 19명 이하, 전공과목은 9명으로 바뀌었고, 입학정원이 30명 이하인 학과 전공과목의 경우 5명 이하이다. 단, 필수 과목은 제외한다.

또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절학기 수업 기간을 주4일(월화목금) 수업을 주3일(월수금) 수업으로 변경했고, 휴학을 했더라도 3학점까지 계절학기 이수가 가능하게 됐다. 단, 휴학 중 이수한 학점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적변동 관리의 문제로 인해 복학하여 정규학기에서 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학점 변경

블교대, 사과대, 경영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 재학생의 경우, 졸업학점이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한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이 21학점에서 18학점으로 조정됐다. 단, 2007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과 졸업학점이 같고, 2007학년도 기준으로 2, 3, 4학년은 최대 21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07학년도까지 블교대, 사과대, 경영대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할 경우에도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다양한 제도 신설

△학·석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인 3.5+1.5 제도가 시행된다. 3.5+1.5제도는 학부과정 7학과와 대학원 3학기로 총 10학과에 학·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취득 조건은 7학기까지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이며 이 경우에 졸업논문은 면제된다. 5~6학기 말에 평점평균 3.5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단,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그 성적은 학사과정의 장학생 선발, 학기 및 졸업우등생 선정, 졸업성적 환산 등 모든 평점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신설된 우등졸업제도가 신설된다. 학기우등 및 우등졸업제도는 매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학기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졸업시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우등졸업생, 4.2 이상인 경우 최우등졸업생으로 학적부와

학위증에 기재하는 것이다.

한편 졸업요건이 강화돼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시 평점평균이 2.0미만인 학생들은 졸업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료로 인정된다.

△학생설계전공제도가 신설됐고 복수전공시 중복학점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54학점 이상을 구성해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경우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이때, 모든 복수전공은 6학점 이내에서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학생설계전공에도 적용된다.

▲기타 제도 변경

△전과는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6학기까지의 재학기간 중 신청횟수에 제한 없이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요건이었던 학업최저교수와 학장의 승인은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 전공기배제제도 는 폐지됐다.

△현장실습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6학점까지 전공최저이수학점 산정에 포함함으로써 학적 취득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방학이나 휴학기간 중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에 대해 1회 1학점, 최대 3학점을 인정

하기로 했다.

단, 어학연수로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학생은 국제교육원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의한 교류시 4개 학기까지 수학 가능해졌다.

△기존의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칙 13개가 하나로 통합됐다. 학사과정 내규·세칙 9개, 일반·전문대학원 내규·세칙 14개, 특수대학원 내규·세칙 13개 역시 각각 학칙시행세칙 1개로 통합됐다. 학생징계규정도 학생이 학적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징계처분하기 전에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학술교류대학이 기존의 건국대, 한국외대, 국민대 3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9개 대학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이다.

주요내용은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교직원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시설물 상호 이용 등이고, 2006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적용 된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긍정적 학습효과 기대 실질적 교육과정 밝기를”

2006학년도 1학기부터 학사제도가 대규모 개편, 시행된다. 지난 2월 공지사항에 올라온 학사제도 개편내용을 보고 수강신청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교무기획팀의 학사제도 담당 신하균 직원을 만나 이번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무기획팀 신하균 직원.

- 이번 학사제도 개편의 취지는 무엇인지.
= 학사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우리 학생들이 내용이 알차고 다양하며 취업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리더십 강좌' 같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강좌를 개설하는 데 힘쓸 것이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더욱 학습에 힘쓰도록 하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위해 노력했다.

- 학사제도 개편이 한꺼번에 이뤄져 학생들의 혼란이 있는데.
= 우리는 학사제도가 대부분 각각의 제도끼리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제도를 소규모로 한두 가지씩은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금의 대규모 개편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개선한 학사제도는 틀을 유지한 채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 학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좋은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수의 능력, 교육과정, 교육환경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생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지식탐구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큰 혼란 없이 개편된 학사제도를 잘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밝기를 바란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조건부 학점포기제 시행

폐강된 강좌에 한해 가능

이번 학기부터 학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학점포기제가 시행된다.

학점포기제 시행은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지역의 10개의 대학과 일부 지방대에서 학점포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도 시행되는 학점포기제의 경우 이미 수강한 강좌가 폐강돼 재수강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과목에 한해 학점포기가 허용된다. 이는 서울 주요대학 중 학점포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유지하고 있는 형식이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학점포기제 시행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우리학교에서도 학점포기제 시행에 관해 시행하자는 학생과 시행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점포기제 도입에 찬성하는 권송이(북한4) 양은 “적성에 안맞는 과목을 재수강하다 학점을 못 채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점포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학점포기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학점포기 신청이 증가하면서 '학점인플레 현상'이 생기고 대외적 평가 하락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행을 반대하는 이윤희(체육교육2) 양은 “학점포기제 시행으로 취직 할 때 기업에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타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양대의 경우 4학년 재학생에 한해 폐강된 강좌를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부산대의 경우 2004년까지 학점포기제를 시행했으나 한 학기 학점포기 신청

이 평균 4천여 건에 이르고 학점취득이 유리한 과목에만 수강생이 몰리는 등 면학분위기가 흐려져 학점포기제를 폐지한 바 있다.

학점포기제 시행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학교 측은 “시행 후에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사제도 개정은 국내 주요 10개 대학과 미국의 10개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루어졌다. 학점 포기제도 그중 하나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한 처음의 의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학생들은 무분별한 학점포기를 지양하고 학교도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기 기대한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불교생태학 총서 2 불교와 생태학**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 편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역
2005/신국판/630면/30,000원
ISBN 89-7801-153-5 94220

이번에 발간된 '불교와 생태학'은 현재까지 불교생태학을 주제로 진행된 외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장 권위 있고 방대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불교생태학 총서 시리즈 2권 '불교와 생태학' 발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는 모든 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고통에 처한 중생들을 자비로써 구제하는 것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종교인간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대승보살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학역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과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요청에 응답하고자 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개교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생태학 총서 시리즈의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인 불교생태학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생태학 분야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해, 해외 학계의 불교생태학 및 그 밖의 종교와 생태학에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불교생태학 분야의 기초 연구 사업으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종교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에서 간행한 '세계종교와 생태학 총서'(Religions of the World and Ecology Series)(전10권) 가운데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을 한 한글로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 저자와 역자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운동은 그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종교와의 결합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론자와 불교학자들은 불교가 환경윤리 내지는 생태철학에 가장 적합한 종교사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 후 1980년 후반부터 서구 불교학자들은 생태학의 문제들을 불교사상에 근거하여 풀어나기 위해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진지한 탐구가 시작되었고, '생태불교학(EcoBuddhism)'이라는 학문 분야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1996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 하는 '종교와 생태학'을 주제로 일련의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로 선택된 것이 바로 '불교와 생태학'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쳐 진행된 이 학술대회에서는 불교 및 유교·신도(神道)·개원(開元)교부(佛敎)·천주교(天主敎)·기독교(基督敎)·이슬람교(回敎)·유교(儒敎) 등의 세계 종교 사상들에 나타난 생태학적 사유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학술적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한 것이 바로 '세계종교와 생태학 총서'입니다.

이번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번역 출간한 '불교와 생태학'은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종교와 생태학'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로 진행된 '불교와 생태학'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정·보완한 것입

니다. 본서에는 남방불교와 생태학, 참어불교, 불교와 동물, 신사상과 생태학, 불교적 생태학의 정의와 문제설정, 미국 불교와 생태학 등을 주제로 다방면의 불교학자들이 불교생태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생태학'의 필진으로 참여한 학자들은 데이비드 랜디스 바빌(David Landis Barnhill)를 비롯해 리타 M. 그로스(Rita M. Gross), 이안 해리스(Ian Harris), 루이스 캄카스터(Lewis Lancaster), 존 다이도 루리(John Daido Lory), 메리 에블린 터커(Mary Evelyn Tucker)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21명의 학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번역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들 비롯해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10명의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3. '불교와 생태학'의 내용 구성

'불교와 생태학'은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부 남방불교와 생태학: 태국의 경우'에서는 현대 태국의 불교생태학에 대한 소개, 그리고 녹색사회의 추진과 시민 공동체의 잠재적 공헌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부 대승불교와 생태학: 일본의 경우'에서는 화엄적 관점에서 자연을 조망한 '자연의 보양(寶贖)'을 비롯해 자연에 대한 불교와 동양의 개념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제3부 불교와 동물들: 인도와 일본'에서는 본토에 나타난 동물들에 관한 내용들을 고찰하는 등 동물의 해방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4부 생보: 문제점들과 정명'에서는 신적 관점에서 보는 자연의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제5부 미국불교: 생태학적 공동체 만들기'에서는 복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교생태적 운동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쯤 마운틴 센터(Zen Mountain Center)의 환경 친화적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6부 불교생태학적 세계관의 응용'에서는 참어불교 운동과 반핵 운동, 인공과 소비 그리고 이에 대한 불교적 대응 등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부 불교와 생태학에 있어서 이론과 방법론적인 이슈들'에서는 불교에서 자연철학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반론과 함께 '녹색불교와 자비의 계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 '불교와 생태학' 발간의 의미

이번에 번역 출간되는 '불교와 생태학'은 현재까지 출간된 불교생태학의 연구 성과 중 가장 방대하고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학계의 불교생태학 연구 경향은 생태학에 대한 불교학적 인식론의 틀을 어떻게 구성하고 불교적 환경운동의 논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모색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서의 번역을 통해 불교생태학에 대한 해외 학계의 연구 동향 및 성과를 소개하고, 국내의 불교생태학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모색함으로써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불교와 생태학'에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불교적 해답을 모색해 왔던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내실 있는 불교생태학의 발전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서구에서 진행된 불교생태학에 대한 문제의식과 학문적 성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본서의 번역 출간은 보다 깊이 있는 불교생태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2006년은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의 불교학을 선도해왔던 본교는 건학 10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 지향적 불교학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비롯해 이후 발간될 일련의 불교생태학 총서 시리즈는 근대 불교학 100년의 성과를 토대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응징하는 불교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중관과 유식**
장미이인(長尾雅人) 지음
김수아 (소운스님) 옮김
2005/국판/478면/14,000원
ISBN 89-7801-155-1 94810

이 책은 저자 나카오 가진(長尾雅人)이 40여 년 동안 발표한 논문들 중 25편을 선택해 '중관과 유식'이라고 제목을 붙여 간행한 것을 수록(소운 김수아)스님 번역하여 이번에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한 것이다. 나카오 가진은 "중관과 유식 어느 것에 정통하기도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공교(空敎)와 유종(有宗)이라고 말하기도 완전히 대립적인 입장에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종합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를 통론편과 각론편으로 나누어 통론편에 8편, 각론편에 17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수록된 논문들 가운데 특히 중관철학에 관한 것은 초기에 속하는 논문들이지만, 그 이외에 세 번째 논문에서는 중관적 공극의 입장을 불타의 '점'에서 발견하려 노력하였다.

여섯 번째 논문에서는 유식교학에 있어서 원리적인 것을 '정량'이라는 단어로 상징하고, 그 이후의 논문은 이 방향을 계속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유식설에 관해서는 유식개념론자의 상세하지는 않지만 유식설을 삼성설과 연관지어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스물 세 번째 논문 '남는 것'은 유식학파적인 중관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중관학파의 사상과 경향을 달리 하는 이 사교 방식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까지 공극적 해결점을 찾지 못한 문제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일곱 번째 불신훈은 나카오 가진 교수가 경도대학에서 퇴임할 때 강연한 것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이들 논문들을 통해 언제나 같은 것, 같은 문제의식, 철학의 세계로서의 황상(住相)과, 그의 황상(遺相), 세속의 복권(復權)과 그들의 황상과 황상의 죽임(即-)이라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이 책의 저자 나카오 가진의 불교연구는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는 통상적으로 중관과 유식을 무와 유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를 일신하고자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의 융합적 견지에서 통합의 시도를 계속해 왔으며, 그의 그러한 40여 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한 권의 역작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25편의 논문들은 모두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의 사상적 대립보다는 두 사상의 상호보완 내지 교섭을 위한 저자의 치열한 사색의 과정이 그려져 있어 중관과 유식철학의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하는 이들에게 많은 시사적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3 **동국총서 13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
김순호 지음
2005/국판/478면/14,000원
ISBN 89-7801-155-1 94810

사람이 불교의 유입과 더불어 등장했다고 보면 최초의 전법자 阿道(阿道)이 머물며 불법을 전파했다는 일선군 노래의 집이 최초의 절이 아닐까 싶다. 그 후 이 땅에는 못 별과 같이 많은 절이 지어지고 혹은 사라져 갔다. 사찰연기설화는 창사, 중창, 폐사에 걸친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것으로 규정한 뒤 필자는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서사적 위상에 주목하였다. 삼국유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던 사찰연기담은 단편적이고 간략한 역사기록 대신 부처, 보살, 스님, 불자들의 삶과 세계관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특징을 지닌다. 가령 터잡기-축조-성소표현의 현시 등의 계기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그동안 부처,보살,승, 미륵이 인간과 함께 등장하여 다채롭고도 복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본서에서는 일단 문헌과 구비자료로 이분하고 전자는 신화적 속성 이 강하며 불교적 이해가 깊은 유식자들이 채록 기록한 것으로, 후자는 전진한 심성을 바탕으로 민중들에 의해 전해진 흥미위주의 이야기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대 사찰연기설화가 그 만큼 시대적, 내용적으로 편중이 큰 이야기를 세심하게 다룰 수 있었다. 모든 사찰 연기 설화를 간직한 것은 아니지만 고찰이라면 예외 없이 신기한 창사 내력과 중창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불국사, 통도사,범어사,간봉사,낙산사,해인사,부석사 등등의 설화는 빼어난 서사물로서의 가치를 의문할 수 없게 만든다.

신이 있으니 절이 있다고 우리는 무심하게 여기지만 작은 알자 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연과 인연을 안고 있다는 점을 연기설화들은 절실히 일러준다. 세상에 우연한 것이란 없으며 뿌린 우여야 열매가 있다는 인과응보적 가르침 역시 예외없이 이들 이야기의 기저를 형성한다. 아울러 절터를 잡는 데서부터 별채 부처, 보살, 용의 협조가 있으며 재원을 위해 스님, 신자들이 열마의 피와 땀을 흘렸는지 선명하게 전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찰연기설화의 본질은 절의 역사를 넘어 나라는 존재를 화두로 하여 불교적 사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데 놓인다는 점을 간파하지 않아야 한다.

본서는 술하게 전해 내려오는 각 사찰의 연기설화를 우선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았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찰연기설화의 본질을 완벽히 파헤쳤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눈 여겨 보지 않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 형식미학의 일단을 집어넣는 점에서 주목되는 연구라는 것이다.

우리는 동국가족

올해로 동국 건학 100주년입니다. 100년 동안 '동국'을 통해 맺어진 수많은 인연들의 이야기를 우리신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정겨운 인연들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소개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부 02-2260-3491 / dgupress@dongguk.edu

사돈지간으로 선후배 사이에서



이제곤 동문

무한히 넓은 우주에서 지구,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에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확률을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난다면... 게다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가족의 인연까지 맺을 수 있다는 것, 이뤄질 수 있는 확률이 작은 만큼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제곤(경제 68졸) 동문과 김동길(경제 58졸) 동문은 그런 행운의 사나이들이다.

이제곤 동문과 김동길 동문은 사돈지간이다. 현재 주식회사 스탠다드의 사장인 이 동문과 광성종합건설회사 회장인 김 동문은 10년 선후배 사이이다. 이로인해 졸업 후 동문들의 친목 골프 모임에서야 만나 친해졌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두 동문은 서로의 딸과 아들의 결혼을 맞이하고 가족이 됐다.

두 동문은 그 후에도 다른 동문들과 함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관계를 이어나간다고 한다. "우리 손녀들까지도 동국대에 간다면 더욱 좋겠다"며 웃는 이 동문. 이 동문의 매제도 우리 동문이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아들까지도 동국대를 졸업했다고 하니 이것을 동국대와의 '인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이 동문은 우리 동문들로 이뤄진 모임만 다섯 곳이 넘게 참여한다. "재학 중에도 학군단, 학생회 활동 등 현실 참여를 많이 했어요. 대학원도 세 곳을 다녔고... 그만큼 학교와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죠." 졸업한지 40여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교가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정은 크다. 그래서 더욱 동문들과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10년 전, 서로의 딸과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동문들의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학



10여년 전 이제곤 동문의 처녀와 김동길 동문의 처남의 결혼 사진. 왼쪽 첫번째가 김 동문, 맨 오른쪽이 이 동문.

연'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기를 마시며 꿈을 키웠다는 점에서 '인연'이라고 생각해 소중히 여기죠."

이 동문 주위에는 사회 각계의 주요인물인 동문이 많다고 한다.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학교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돈, 명예 때문에 인연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학교와의 인연을 타대학의 모범이 되도록, 공부 잘 하는 것보다 '의리'가 있고 '결집'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재단과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이 서로 화합해 우리학교의 비전을 이끌어내, 바람직한 학문의 전당으로 만들기를 바란다"며 "어느 한 구성원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전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이제곤 동문의 모습에서 진정한 '동국가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주현 기자
nitate@dongguk.edu

이야기 동국 100년

승려의 도성 출입을 허하라

① 근대 불교학교 설립의 배경



중앙불교전문학교 시대의 재단인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세기 말, 조선의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조선불교로서는 이 시기가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다. 강화도조약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정토진종은 1877년 부산에 별원을 세워 조선의 승려와 신도를 포섭하기 시작했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각 불교종파는 조선에 중군승을 파견하였다.

일본불교가 조선불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895년 일련종 승려 사노젠레(佐野前勵)에 의해서였다. 당시 사노젠레는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급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조선정부에 건의하였고, 총리대신 김홍집이 이를 고종에게 상주하여 그해 3월 30일 이 조치가 해제되었다.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는 연산군 9년(1503)에 처음 선포된 이후 인조·정조·순조를 거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때문에 승려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4대문 안에 발을 붙일 수 없었고, 도성출입이 허용되고 나서야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일본불교계의 숨은 목적은 문화적 침투를 통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었다.

이에 맞서 조선불교계가 사찰재산의 보호를 강력히 요청하자 정부는 1902년 공내부 소속으로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조선불교는 국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고, 불교가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계기가 되었다.

승려의 도성출입 허용과 불교교단의 정비는 산중(山中) 불교에 익숙해 있던 조선불교계의 자각과 함께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개항 이후 외국인들에 의해 신식학교가 설립되자 고종황제는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895년 2월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각급 학교의 관제와 규정들이 제정되자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각종 단체와 모임을 만들어 민족교육에 힘을 쏟았다.

당시 교육활동과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기독교였다. 기독교는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신도를 확보하는 한편, 의료와 교육사업을 바탕으로 교세를 점차 확장해 나갔다. 이에 불교계 인사들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근대식 불교학교의 설립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색은 결국 불교계 지도자들의 모임 결성으로 이어졌고, 우리학교 최초의 전신인 '명진학교' 설립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용 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100주년 기념선물 One Shot!!

신입생에게 장학금 수여 ... 매년 이과계 장학생 5명 혜택 기여



권오춘 동문
영문 61졸
초허당 장학재단 이사장

건학 100주년 새학기가 밝았다. 지난달 27일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이 활기차기만 하다. 100년동이 신입생 후배에게 건학 100주년 기념선물을 '쏟' 선배가 있다. 초허당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오춘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신입생 5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동국대학교가 100년이 됐는데, 그 중 절반이 학교와 인연을 맺은 시간"이라며 100주년 기념선물을 'one shot' 했다는 권 동문은 그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이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매년 5명의 이과계 학생에게 500만원씩 장학금 선물을 주게

된다. 2004년 시가 12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학교에 기증해 거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장학금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라며 권동문은 장학생 선발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기초과학 전공생이다. 권동문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지만 "인기학과와 응용학문으로만 학생들이 집중되고 바윗돌인 기초과학이 등한시되는 풍토가 안타깝다"며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다른 학문이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확장시절 의성에서 서울로 유학해 어려운 고학생활을 보냈다는 권동문은 둘째와 셋째 조건으로 시골출신과 가난한 사람을 꼽았다.

그 다음 조건은 봉사다. 죽어서가 아닌 살아있는 삶에서 극락과 지옥이 있다며 "받을 생각을 하면 바로 지옥살이고, 주고도 미안해 하고 부끄러워 하는 삶이 바로 극락"이라는 '극락패러다임'을 강조한다.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는 것보다 약한 이웃을 위해 자기 시간을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며 생활하길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인데, 그다지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성적이 나쁘다고 공부를 못하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최선의 목표를 정해서 학업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권오춘 동문. "동국대 졸업생들은 끝내준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못한 선배로서 부끄럽다"며 후배들이 사회에 맑은 향기를 퍼뜨리길 소망했다.

편집부
dgupress@dongguk.edu



당신은 영원한 동국가족입니다



권기중 교수
(불교대 불교학과)

“제자들과 함께 한 값진 30년”

학교에서 보낸 30년의 시간은 권기중 교수에게 평생동안 재산이자 거름이 되었다.

권 교수는 매 강의마다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 그가 지금껏 강단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 바로 학문에 대한 열정과 제자들의 진심어린 존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한 제자에 대한 기억을 털어 놓는다.

“24년 전 스승의 날 내 연구실 앞에 꽃 바구니와 편지를 놓고 간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지. 그 편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네”라며 미소 짓는다.

요즘은 예전보다 사제간의 인격적 교류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는 그의 이야기는 현재 대학 내 사제간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퇴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강단에 서서 불교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줄 예정이다.

대학원 강의를 비롯해 외부 학술 활동을 하며 종교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르침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 강단 위에 올라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부단히 달려온 지 30년.

그에게 퇴임은 끝의 아쉬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의 열정과 사상이 앞으로로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성용길 교수
(이과대 화학과)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돼야”

친다.

성 교수는 지난해 스승의 날에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과 서울특별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공로 표창을 수상했다. 지금까지의 수상경력도 화려한 그는 학부 재학생 시절에도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그는 1960년도 우리학교에 특별우수장학생으로 입학했으며, 4년 뒤 총장상을 받고 졸업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런 그는 자신의 경우에 빗대어 볼 때, 대학생들에게는 ‘인생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학생들이 비전이나 꿈과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하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무언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큰 뜻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한 성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

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일을 찾기를 당부한다.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잘 선택하면 평생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테니까. 자기 인생은 자신이 잘 알아야지.” 그런 만큼 성 교수는 지도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딸 때, 혹은 국내·외의 연구소에서 훌륭한 연구원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이주현 기자
nitlake@dongguk.edu

“농민을 위한 연구 이어나갈 것”



김용욱 교수
(생명자원과학대 식물생명공학과)

기빠요”라며 환하게 미소 짓는다.

81년 9월 처음 부임해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제자사랑은 늘 한결 같다. 자연에서 식물들에게 환율이 배를 수 있는 사랑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성직으로밖에 평가할 방법이 없어서 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김용욱 교수. “요즘 취업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 수업에 충실하지 못해요. 주어진 학문에 정진하면 분명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라며 학생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는다.

김 교수는 요즘에도 안면도에서 콩을 연구하며, 연구소를 만들고자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제는 강단이 아닌 시골에서 직접 농민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에 콩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식지 않은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어 스스로를 낮추지만, 그 풍경은 어떤 모습보다도 찬란히 빛난다. 익어가는 한 줄기의 벼처럼 겸손의 미덕을 가진 그는 이제 강단을 떠나게 됐다. 대신 보다 더 큰 교실인 자연 속에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와 자연에서 식물을 연구하며 그가 흘린 땀과 그의 모습은 많은 동국인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나는 동국인임이 자랑스럽다”



하성철 교수
(공과대 전기공학과)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긴 것 없이 교단을 떠나서 아쉽네”라며 첫 운을 때는 하성철(전기공학) 교수. 그에게 교직생활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한 값지고 보람 있는 발자취이다. 약 35년의 교직생활 동안 별 탈 없이 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학교, 교수, 학생들 덕분이라며 퇴임소감을 대신한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동양에서 보낸 만큼 학교에 대한 하 교수의 자부심도 남다르다. “어디를 가든지 삶의 터전이자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한 동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는 하지”라며 “요즘 학생들이 동국의 일원으로 선택된 사람임을 잊고 지내는 것이 늘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

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 못지않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만큼 하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학생들이 지킬 덕목을 강조하며 애정 어린 관심을 내비쳤다. 그는 “젊은 만큼 열정을 가져라”며 “공부보다는 많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한다.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하 교수. 노력을 통한 집중력 향상이나,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선 올바른 인격 형성 역시 그가 평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한만큼 빛을 발휘할 수 있고 재능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지성인에 걸 맞는 인격도 갖춰라”는 말로 마무리 짓는다.

퇴임 후 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서예, 독서, 건강을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는 하 교수에게서 그간 잊고 있었던 약간의 여유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도 강좌를 맡고 있고, 앞으로도 스스로 동국을 잊지 않으며 관심은 늘 학교로 향해 있을 것”이라는 말처럼 하 교수의 ‘동국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동국과 함께 한 50년 연극인의 길”



김홍우 교수
(예술대 연극학과)

“인생은 전, 중, 후의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하네. 나는 지금 마지막 문턱에 있는 것 같아”라며 퇴임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 시작하는 김홍우(연극학) 교수. 그는 지난 1월 한국희곡작가협회 이사장에 선임돼, 퇴임식을 목전에 앞둔 때에도 업무에 한창 바쁜 모습이다. 게다가 작품 활동도 계속 하고 남해군의 한 폐교에 세우는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총장까지 맡아 퇴임이 서운하기보다 짐을 털어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란다.

김 교수는 “올해는 내 정년이기도 하지만, 내가 연극을 시작하지 꼭 50년째 되는 해야. 학교는 내게 인생의 과반을 동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고 내 잔뼈를 키워줘 고마움 뿐이지”라며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내비친다. 1960년 국내 최초로 우리학교에 연극학과가 생겼을 때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입학한 김 교수는 연극학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지켜 본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거치지 않고 우리학교 연극학과에 몸담았던 사람은 없는 셈이다.

그런 그이기에 최근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개인주의’ 현상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한다. 김 교수는 자신의 학과가 아닌 분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들을 염려한다. “사실 학문을 하는 이유는 배워서 그를 응용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자기만 알고 그치는 데에야 개인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예술인 중에는 자기관리에 소홀해 일찍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하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니까. 인간의 삶을 재조명하는 연극에 있어서 자신의 삶도 못 지키는 사람이 관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김 교수. 항상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죽는 그 순간까지 연극을 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그에게서 연극에 대한 열정과 함께 후학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이주현 기자
nitlake@dongguk.edu

2006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남 종 국
문과대학 사학과
조교수

올해 백년을 맞는 명문사학인 동국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전공은 중세 지중해 무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과거사 청산, 외부적으로는 주변 이웃국가들과의 역사 전쟁 등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가 버린 일만을 문제 삼는 과거지향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올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진행형의 학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명한 역사가인 카야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은 되새겨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국의 젊은이들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겠습니다.

△ 서양고중세사 전공 △ 서울대 서양사 석사 △ 프랑스 파리 1대 박사




윤 현 숙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무엇보다도 동국대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가족이 된 점에 대해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 가득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되새기며 이 벅찬 기쁨을 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 실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연구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해 봅니다.

△ 영어교육 전공 △ 한국 외대 영어과 △ 미국 Ohio주립대 영어교육(TESOL) 석사, 박사



황 성 기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헌법전공 △ 서울대 사법학과 △ 서울대 법학석사, 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한림대 법학부 부교수



손 인 수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조교수

10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를 잘 이용하면서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면 동국대학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가 IT 명문대학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며 여러분과 자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 이동통신 전공 △ 미국 RPI 컴퓨터공학과 △ 미국 NJIT 전기공학 석사 △ 미국 SMU 전기공학 박사 △ 에릭슨 USA 선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명지대 조교수



김 정 호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조교수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의 신입교원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동국대의 한 세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 13년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간은 미국의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젊은 나이이지만 이렇게 한 분야에 오랫동안 몰두하다보니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높은 곳에서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 듯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신학문을 이제 막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스승이자 동시에 스승으로서는 하기 힘든 선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까지도 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게임그래픽디자인 및 게임기획 전공 △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FA △ 동서대 전임강사



서 은 숙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조교수

부족한 저에게 앞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 기회를 주신 동국대학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윤리의 학문적 체계화와 세계화에 노력하며, 사회 봉사면에서 학계 및 지역 사회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윤리 전공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 석사, 박사 △ 미국 Connecticut 주립대 철학과 Post-Doc.



김 준 석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

제 전공은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수치해석으로 여러 자연현상과 과학적, 산업적 응용문제를 수학적 방정식으로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구한 다음 여러 가지 비주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결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동국대에서 여러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이 분야의 세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 수치해석학 전공 △ 고려대 수학교육학과 △ 서울대 수학과 석사 △ 미국 Minnesota 주립대 수학 박사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Postgraduate Researcher



조 성 혜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단에 선 지는 꽤 오래지만 새 출발이 늘 그렇듯이 동국에서의 '두드림' 역시 박차고 설레고 긴장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여 스스로 자랑스런 동국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와 동국 가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사회법 전공 △ 이화여대 법학과 △ 독일 Bonn대 법학 석사, 박사 △ 대전대 부교수



박 현 주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제 전공 분야는 상담심리학 및 상담자교육입니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알버트와 대항행동'이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뉴욕주립대(Albany)에서 강의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에 매진하며, 특히 상담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창조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동국대학교의 일원으로서 부단히 정진하겠습니다.

△ 상담심리교육 전공 △ 서울대 심리학 석사 △ 미국 Missouri대 박사 △ 미국 Notre Dame대 상담소 인턴 △ 미국 뉴욕주립대(SUNY Albany) 강의교수

- 경주캠퍼스**
- ▲ 김혜순 △ 불교문화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 오현옥 △ 인문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 조교수
 - ▲ 김성아 △ 자연과학대학 수학교육과 부교수
 - ▲ 반상우 △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 ▲ 안영규 △ 상경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 ▲ 박종구 △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 ▲ 조민오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경주병원**
- ▲ 백진호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내과(혈액종양내과)
 - ▲ 김애숙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소아과(신생아과)
 - ▲ 이용길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안과(망막)
 - ▲ 김현정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방사선종양학과(종양방사선)
 - ▲ 이 관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산업의학과(산업 및 예방의학)

- 포항병원**
- ▲ 김진욱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신경외과(신경외과)


- 일산병원**
- ▲ 김의석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내과(감염)
 - ▲ 신영주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안과
 - ▲ 황상원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안과
 - ▲ 박천욱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산부인과
 - ▲ 나소영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소아과
 - ▲ 이정화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소아과
 - ▲ 허희진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진단검사의학과
 - ▲ 이준규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내과(소화기)
 - ▲ 박근민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내과(호흡기)
 - ▲ 오진영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내과(호흡기)
 - ▲ 김경아 △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 내과(내분비)
 - ▲ 박범석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외과
 - ▲ 조근태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신경외과
 - ▲ 정상욱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신경과
 - ▲ 김광기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신경과
 - ▲ 송재준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이비인후과
 - ▲ 김범준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피부부과
 - ▲ 김선호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진단방사선과
 - ▲ 김경욱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 ▲ 허용준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 ▲ 여정석 △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 핵의학과
 - ▲ 윤형근 △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 ▲ 신성준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내과(신장)
 - ▲ 박형근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비뇨기과
 - ▲ 박진우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재활의학과
 - ▲ 김유일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가정의학과
 - ▲ 김창연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 성형외과
 - ▲ 홍승호 △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조교수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 ▲ 김호준 △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조교수 △ 한방재활의학과



정 환 국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딱 20년 전이었죠. 열아홉살 새내기. 동경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대하이라는 세계로 들어왔었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새네기가 되어 그때의 저와 같은 새네기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파릇한 봄빛처럼, 무뎠은 봄물처럼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고전문학 전공 △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 성균관대 한문학 석사, 박사 △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교수



박 병 식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1976년 입학생으로 동아에 첫발을 내디딘 지 30년. 푸른 꿈과 뜨거운 가슴을 지녔던 청년이 교수가 되어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캠퍼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서성이며 옛 추억의 흔적을 더듬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다시 서있을까, 의미를 찾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동국의 힘찬 비상에 일조하리라!

△ 동국대 법학과 △ 일본 메이지대(明治大) 법학연구 석사, 박사 △ 용인대 경영과 부교수



김용현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조교수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의욕적인 발걸음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시대를 주도하는 준비된 학생을 키우고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미려하나마 학과 발전과 인류 동국의 길에 웅망정진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학 전공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 동국대 정치학 석사, 박사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 수 완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조교수

새로운 설렘으로 3월을 맞습니다. 10여년을 다니며 익숙해진 교정인데 마치 신입생처럼 가슴이 떨립니다.

오래전 신입생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다짐했던, 그러나 지키지 못했던 많은 나 자신과의 약속들이 떠오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대학 생활은 지난 시간보다 덜 후회하는 날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만남들이 후회없는 좋은 시간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 영화이론 전공 △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 동국대 연극영화학 석사, 박사 △ 전주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박 광 현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꼭 20년 전, 저는 이곳 목멱골로 들어와 배움에 뜻을 품었습니다. 동대인으로서 10년 동안의 시간이 아직 명진관 곳곳에 묻어있는 듯 합니다. 목멱골을 떠나 유학길에 오른 것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국의 품으로 돌아와 백년의 역사 위에 새롭게 한 세기를 시작하는 모교에서 후배들과 함께 배움의 길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단위로 거듭된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재회. 어쩌면 그것은 모교와 나의 운명 같은 일련의 암시일지 모릅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교육과 연구에 임하며 새로운 100년의 인연을 쌓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한국현대문화연구 전공 △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 일본 다이쇼대 일어일문학 석사 △ 일본 나고야대 사회정보학 박사



서 계 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사학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지적재산권 분야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고취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적 창조물을 그 사회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창작자와 이용자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적재산권법 전공 △ 서울대 물리학과, 공법학과 △ 서울대 법학 석사, 박사 △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연구원 △ 영산대 전임강사



여 준 상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100년 전통의 동국대에서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의 전공은 경영학 내에서 마케팅 분야입니다. 특히 소비자행동, 소비자심리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마케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관심 연구는 브랜드확장 및 제휴 전략, 광고 및 판촉의 설득효과 제고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동국대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동국대가 한국의, 더 나아가 세계의 마케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국대 화이팅!

△ 마케팅(소비자행동) 전공 △ 고려대 경영학 석사, 박사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인 덕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조교수

오랜 시간 잘 길들여지고 손에 익숙한 악기에서 편안하고 풍성한 하모니가 연주되는 것처럼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국대학교에서 새롭고 소중한 인연을 시작하게 되어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lly ready?'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자문자답해보는 여러 질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책임감 있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2%가 아닌 20%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7년여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영화영상제작/사운드 전공 △ 호서대 음악과 △ NYIT(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석사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달하나 천강에

체험학 통해 지적 낭만 누리자



김갑기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물론 피끓는 젊음과 자기계발 의지가 전제되지 않은 대학생활은 상대적으로 그 무엇이 보장되지 않는 허송 세월임은 냉엄한 인과의 법칙이다. 진실로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꾸려내는 일, 그것은 무상한 시간의 여유로운 활용이다. 학창의 선배로 몇 가지 제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사고의 틀을 바꾸자. 종속의 틀에서 주체로의 자아인식, 이른바 과보호의 그물망으로부터 일탈하여 성숙한 자아로 회귀할 때 건전한 가치관은 물론,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되며, 그 때 우리는 스스로 한 단계 성숙한 지성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범박한 시냇물로 마마보이, 혹은 공주병으로부터 긍정적 자아확립이 가능하며, 그러므로 비로소 주인공으로서의 자아 사랑, 그리고 자아 성취라는 이상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대학인만의 특권이라 할 다양한 체험, 그것도 즉물적 체험이 아닌 비판적 체험의 권유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학창은 얼마나 수고롭고 답답했는가. 온전히 타의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그나마 오로지 진학 일념으로 '집→학교→학원'을 쫓아다니며 땀 흘렸을 뿐 무엇을 사고할 여유가 있었으며, 비판할 기회가 있었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자의 불안한 취업난으로 대학생들마저 의기소침하거나 다시 취업 일념으로 위축돼 있음이다.

물론 취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일자리는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보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체득한 지적 글로벌화를 요한다. 전공 교과 외에 고작 몇 권 독서와 한 두 편 영화 감상으로 학창의 지적 낭만을 방기(放棄)하지 말자. 무목적적 향락은 낭만이 아닌 방탕이다.

적어도 대학생은 '미지에 대한 신천지의 발견' 같은 희열을 느껴 가는 기쁨, 그것을 우리는 지적 낭만이라 한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체험의 기회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공연문화, 수많은 서클활동을 통한 체험학은 교과서적 지식 못지 않은 신지식이자 실생활 체험이다. 자아 성숙을 위한 알찬 설계와 부단한 정진만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은 물론, 주인공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지성인임을 부정하지 말자. 거듭 '시간은 잘 갈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할 줄 아는 자만이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보편적 체험담으로 여러분의 알찬 대학생활이 경영되기를 소망한다.

병술 신년의 새해 아침을 맞은 게 어제 같은데, 어김없이 계절의 질서는 벌써 우수를 보내고 경칩을 목전에 불러왔는가 하면, 예외 없이 캠퍼스엔 또 싱그런 개나리꽃보다 더 풋풋한 새내기들의 신명과 함께 예의 낭만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른바 희망과 비전의 약속들이 들끓는 밤바다처럼 수련거린다. 그러기에 캠퍼스는 언제나 젊음들의 벅찬 아우성과, 자기계발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상존한 지적 종합 공간이다.

탈수습기

활기찬 봄에 피어날 꽃봉오리의 가능성 보여줄 터

공자는 일찍이 정치에 뜻을 두었지만 오십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노나라에 등용됐다. 또한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에도 제자들을 양성하며 평생을 '현역'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 작가의 표현대로 인생을 늦게 꽃피운 사람, 즉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이다.

나 또한 비록 다른 동기들보다 한 발자국 늦게 출발했지만 이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아낌없이 벌리고자 한다. 다른 기자들이 실전에 투입된 활짝 핀 꽃이라면, 나는 지난 두 달여 동안 땀뻑한 방중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곧 피어오를 꽃망울이다.

그간 취재·기사·사진·편집 등 기사 작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배워왔다. 종강과 동시에 방학 내내 신년호 준비부터 세미

나, 교육, L.T.를 거쳐 개강호 준비를 하면서, 한산한 캠퍼스를 누구보다도 바빠 누비고 다녔다.

이러한 기반다지기는 치열한 취재 현장에 곧바로 뛰어든다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정기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숙고시기이자 자양분이었다.

이렇듯 내가 정기자로 거듭나는 길을 걸으며 지치고 힘들 때면,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봐준 신문사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힘들 때 진심어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들은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신문사를 이끌어 갈 동기들은 매 순간 서로를 보듬어 주며,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신

문사 입사 때 가졌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부딪혀 고민할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는 지원군이기도 하다. 이렇듯 신문사를 통해 얻은 소중한 '사람'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다.

이제 짧지만 값진 시간이었던 수습기간을 마친다. 나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다'라는 한 시구처럼 매 순간이 미래를 향한 꽃봉오리임을 잊지 않고 치열하게 임하려 한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단 한 편이라도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호흡하는 기사를 쓸 때, 비로소 나의 꽃은 활짝 필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동국인을 위한 취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D.C.E.P (Dongguk Career Elite Program)

재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2006년 취업시장의 트렌드는 조기 취업 준비와 개별 맞춤형 취업전략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동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기업에서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를 겨냥하지 않으면 '팔장 도루묵'이 된다. 이에 동국인들을 위한 취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D.C.E.P을 소개하고자 한다.

D.C.E.P이란 무엇인가.
Dongguk Career Elite Program으로서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저학년부턴 실시함으로써 졸업시 동국대학교가 보증하는 맞춤형 인재 관리 프로그램이다.

기업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신입 직원에게 드는 교육비 절감과 업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즉시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력직같은 신입직원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준비된 인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맞춤형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 바로 D.C.E.P 프로그램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역량과 자질

배양을 위한 교과목 개설,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는 토익, CBT, 텡스점수,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봉사 활동은 D.C.E.P이 맞춤형 인재 양성의 메카가 되는 이유이다.

조기 취업준비와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위에 서고자 하는 동국인의 취업 준비 필수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분교 출신 선배의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D.C.E.P 한마디!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십시오.
D.C.E.P가 취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취업은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75%의 D.C.E.P이수자가 취업을 했습니다.
저 역시 D.C.E.P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기에 취업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작지만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후배 여러분 파이팅!!"

- 변세형(정보통신 05졸), LG전자 입사 -

박 선 희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상담원

기업이 바라는 인재가 되기 위한 10대 소양과 자질로서 다음 10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전문지식과 폭넓은 교양으로 무장된 사람
2. 국제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사람
3. 진취적인 사람
4. 도전과 성취의식이 있는 사람
5.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가진 사람
6.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7. 인간미 있는 사람
8. 책임감이 있는 사람
9. 협력하는 사람
10. 예의 바른 사람

* 주요 기업 인사담당 임원 방문 조사 결과 - 전경련 보도자료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저학년부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 이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조직역량·인성 등을 함양케 하고, 성적·외국어 능력·컴퓨터 활용 능력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인증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 진출 시 본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자부심과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2면 하단광고 참조)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모집인원 ○○명
-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 원서접수 3월 16일(목)까지
- 전형일시 3월 16일(목) 6시까지
- 원서고부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 문의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2260-3491 ~ 2
홈페이지 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
- 혜택 장학금·활동비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개설 어학특강 무료 수강
기자전문교육기관 무료 수강
임기만료 후 언론인전문교육기관 등록 지원

동대신문사 객원기자 모집

동대신문과 함께 동국 소식을 전할 객원 기자를 모집합니다. 열린 신문, 열린 정보로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동대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동국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각 단과대별 1명, 대학원생 1명, 만평기자 1명
- 응시자격 학년제한없음(단, 재학생에 한함)
- 원서접수 3월 15일(수)까지
- 전형일시 3월 15일(수) 6시까지
- 원서고부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 문의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2260-3491 ~ 2
홈페이지 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
- 혜택 매월 소정의 활동비 지원
- 임기 2006학년도 1학기

Do Dream!